

석유협회, 해외석유개발협회와 통합

-민간단체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새 정부 들어 처음-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5월 27일자로 해외석유개발협회를 흡수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내 정유5사의 사업자단체인 대한석유협회가 통합을 위해 정관개정과 조직개편을 마친데 이어, 해외석유개발협회는 지난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대한석유협회의 석유개발팀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해외석유개발협회의 20개 회원사는 대한석유협회 회원사로 자동 승계되었다.

양 협회는 우리 경제와 전 산업부문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개혁에 맞추어 지난 3월부터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왔다.

최근 석유산업이 개방화·자유화됨에 따라 무한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협회의 효율화 및 대외활동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어, 석유관련 유사단체의 중복 기능을 개선하고 국내석유업계의 상·하류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석유협회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단체로서 상·하류부문의 석유산업 정보를 회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협회의 통합을 통하여 해외석유개발협회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세계석유회의(WPC) 한국 위원회 업무도 협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사실상 3개 민간단체가 통합한 셈이어서 협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대외교섭능력과 국제정보 교류활동이 강화될 것이며 다른 사업분야의 민간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